

#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 Older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s

조영미\*, 김은정\*\*, 석소현\*\*\*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Young Mi Cho(choyoung23@ch.ac.kr)\*, Eun-Jung Kim(edema2@daum.net)\*\*,  
Soh Hune Sok(sok5977@kh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7명의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눈덩이 방법을 통해 표집 하였고, 현상학적 방법 중의 하나인 Colaizzi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8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고, 8개의 주제모음과 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5개의 범주는 '고난 속 학업', '혼자 떠도는 조각배', '편견에 부딪힘', '나만의 무기', '그래도 희망은 꽃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변의 의식전환 및 지지체계의 구축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중심어 : | 만학도 | 대학생활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understand the college life experiences of older nursing students. We interviewed 7 older nursing students, and analyzed the data through Colaizzi's method which is one of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ere were 108 meaningful statements derived from the original data. It was composed of 20 themes, confirm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l data. The 8 theme clusters and the five categories were organized. The five categories are: 'hardship of study', 'a solitary drifting ship', 'confront prejudice', 'weapons for only me', and 'a flower of hope'. As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an adaptive program for older nursing students.

■ keyword : | Older Nursing Student | College Life Experience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취업 불안과 취업 실패를 경험한다[1]. 이에 최근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 또는 재취

업과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위해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성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재학생의 평균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2], 간호학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제도 및 정책의 변화, 의료시장 개방,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도입 등의 변

화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 간호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되었고, 더불어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3]. 이와 같은 사회현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4][5]. 또한 많은 매체를 통해 간호사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대한 정보, 신생 병원의 설립 등으로 간호학과 지원율은 타 전공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6][7].

학생들의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높은 취업률, 지인의 권유, 그리고 적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6], 간호학과 편입의 동기는 전문직 직장, 적성의 고려, 그리고 취업의 용이인 것으로 나타났[7]. 간호학과 학생들은 대학 재학 내내 진로와 취업방향에 대해 고심하는 일반적인 대학생들과는 달리 진로와 취업이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학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8].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간호학과의 경우 나이가 많은 학생들 상당수가 학과에 지원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대학에서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서열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간호학과에서도 뽑을 수 있는 편입학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7]. 편입은 이미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졸업한 학생이 기존의 대학, 학과 선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목적에 따라 학과나 전공을 재선택하거나 명성이나 인지도가 높은 대학, 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9], 1995년에 13,928명으로 많은 수의 편입생들이 생겨나고, 2000학년도에 33,326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2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매년 3-4만 명 사이의 학생들이 편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렇게 편입생이 늘어난 이유는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의 설립이 자유로워져 고등교육기관이 지적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편입생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0]. 이러한 사회적 요구 및 추세에 따른 급격한 편입생 수의 증가는 나이 많은 학습자들, 즉 만학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18-24세의 학생들이 전체 입학생의 2012년에는 96.3%, 2014년에는 97.8% 집계되어 나머지는 25세 이상의 전체 입학생의 반영하고 있다[10].

만학도란 입학전형자격을 기준으로 30세 이상의 연령, 또는 사회 통념상 대학 진학 적령기를 지났다고 여

기는 성인 학습자를 말하기도 하며[11], 학령기에 정규 학교를 졸업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학습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12]. 이러한 만학도는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10], 간호학과에서 역시 많은 만학도를 만날 수 있다.

만학도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기혼 여성 만학도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2][13] 수행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만학도로서 공부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소현과 모아라[14]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이 58-65세의 보건관련학과 여성만학도를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어려움과 대학생활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의 갈등체험에 관한 연구[12]도 수행되어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었다. 양적연구로는 만학도들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로[15] 대학생활의 업무적 만족도와 정서·신체적 만족도가 만학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만학도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정 성별만을 연구하거나[2][13], 학과를 구분 없이 만학도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나[12] 간호학과 만학도들의 대학생활경험을 알아 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서 수학하고 있는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간호대학 생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30세 이상의 3, 4학년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을 편의 표집 하였고, 이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만학도들을 간호학과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만

학도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의 전환 및 만학도의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한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생생한 대학생활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이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경험을 본질적으로 탐색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적절한 대상자를 표집하는 것이 중요하다[16]. 연구의 참여자는 경북소재 G시의 4년제 G대학에 재학 중인 만 30세 이상의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이야기 해 줄 수 있고, 스스로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지원한 학생들이 참여자가 되었다. 20대의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만학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학교생활에 있어 동급생들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만학도로서의 대학생활의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 할 수 없어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참여자 표출은 본 연구를 위해 경험과 정보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연구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만학도를 매개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만학도를 추천 및 소개 받아 대상자를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간호학과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 만학도 7명을 선정하였고, 연령은 40대가 2명(44세, 42세), 30대가 5명(34세, 33세, 32세, 31세 2명)으로 구성되었다. 간호학과 입학 전 직업은 조무사, 수석강사, 회사원, 기간제 교사, 수영강사, 토목기사, 취업준비생이었다. 이중 기혼은 2명이고, 5명은 미혼인 상태였다.

### 3.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질적연구의 기본 자료 수집 방법인 심층 면담 방법을 통하여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1차면담 시행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와 함께 대상자의 면담 내용은 녹음이 됨을 사전 동의를 받았고, 면담 중과 끝난 후 현장노트를 적어두었다. 녹음된 내용은 대상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면서 현장 노트와 비교하여 현장노트에 필기된 대상자의 행동이나 비언어적 표현들을 삽입하였다. 면담은 1회당 60분-70분 정도 소요되었고, 한 사람당 1-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은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경험은 어떠한가?’, ‘만학도 간호대학생으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만학도 간호대학생으로서 갖는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인가?’였다. 면담 대상자 자신이 면담 시 만학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참여자	학년	나이	성별	기혼상태	입학 전 직업
참여자1	4학년	42	여자	기혼	조무사
참여자2	3학년	44	남자	기혼	학원 강사
참여자3	3학년	33	여자	미혼	회사원
참여자4	3학년	34	여자	미혼	기간제 교사
참여자5	4학년	32	남자	미혼	토목기사
참여자6	3학년	31	남자	미혼	수영강사
참여자7	3학년	31	남자	미혼	취업준비생

도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하도록 시간을 주었으며 이를 경청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 중 Colaizzi가[17]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생활 경험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녹음된 면담 내용을 경청하면서 필사하였고,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추출하였다.
- 2) 필사본 중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의미 있는 진술이나 반복되는 진술의 중심으로 주요 진술 108개를 도출하였다.
- 3)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고,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 4) 도출된 의미들 중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고 분류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 모음을 조직한 후 주제 모음별로 범주를 조직하였다.
- 5) 도출된 의미에서 20개의 주제와 8개의 주제모음들, 그리고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 6)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을 통합하였고, 대상자들에게 필사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5. 연구의 엄격성과 확실성 확보

본 연구에서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질적연구의 평가 준거를 이용하였다[18]. 첫째,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신빙성(Credibility)을 위해 3명의 연구자가 분석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이 모여 각자의 분석내용을 논의하였고 도출한 결과들을 회의를 통해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의 포화를 얻음으로써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엄격

성(Rigor)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료수집 절차 등을 기술하였다. 셋째,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Colaizzi[17]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따르고, 연구결과에서 적합한 인용문들을 제시하여 결과와 자료의 연결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확립을 위해 신뢰성, 적합성, 그리고 감사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이 최소화된 중립적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질적간호 연구를 교육 받았으며, 질적연구 이론을 습득하고 연구능력교취를 위해 질적 학회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다수의 세미나 및 학회에 참가하여 질적연구에 대한 기본이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질적연구에 대한 폭넓은 서적과 국내의 저널을 읽고 질적연구에 관심을 가진 교수들과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만학도 학생들과의 상담 경험이 다수 있고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연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과 일주일에 2번씩 총 8주간 교류하면서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 장기간에 관계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개관적 관찰과 해석을 유도하고 연구대상의 반응성과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위해 연구과정을 기록하고 자료를 보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고찰 받았다.

####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이 될 것임을 사전에 동의를 얻었고, 참여자가 연구 도중이라도 원한다면 면담을 중단할 수 있으며, 면담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받았다. 필사본의 작성과 연구결과 진술시 참여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참여자의 개인 사항이나 신원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기호화하여 기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만학도 간호대학생 대학생활 경험의 범주와 주제모음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6]가 제시한 분석 방법을 통해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7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로부터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은 총 108개였고, 원자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면서 총 20개의 주제(Themes)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주제 가운데 통합할 수 있는 것끼리 모아 8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과 5개의 범주(Categories)로 구성하였다.

##### 1) 범주1: 고난 속 학업

이 범주에는 ‘학업의 어려움’, ‘함께하기 힘든 세대차이’, 그리고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고민’ 이라는 3가지의 주제 모음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게 되므로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간호학의 특성상 교과목과 실습이 병행하여 진행되고 교과목의 양도 방대하며 암기해야하는 과목들이 많다. 더불어 학습에 있어 그룹을 지어 공부해야 하는 조별과제의 경우 팀웍을 잘 쌓아야 하지만 나이 차이에서 오는 세대 차이를 실감하고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한편 간호대학생으로서의 학업, 실습이나 취업고민들도 있어 만학도 학생들이 학업을 정진하는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 (1) 학업의 어려움

이 주제모음은 ‘방대한 학업량’, ‘암기의 어려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간호학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다루는 학문을 배우는 것으로 학업의 양이나 질 면에서 그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다. 나이가 들어서 간호학을 접하는 만학도들에게는 그 학업량이 너무 버

거웠으며 특히 저학년에 분포하고 있는 기초의학을 공부할 때는 암기가 필수인 조건이 되지만, 젊은 친구들에 비해 암기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느꼈다. 그럴 때 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을 만큼의 학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꼈다.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2주 실습 갔다가 들어오면 그 2주분 까지 벼락코스로 2주 동안 강의를 받았잖아요. 그럼 정말 공부해야 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잖아도 나이가 들어서 암기가 힘든데 너무 많은 것을 암기해야 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참여자 5)  
공부를 하는데도 너무 많이 까먹어요 분명히 봤고 외웠는데... 정말 많이 봐도 까먹는 거예요.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고, 다른 애들은 한번 보고 다 외우고 다들 잘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책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1)

##### (2) 함께하기 힘든 세대차이

이 주제모음은 젊은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하는 실습이나 조별과제 등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 주제모음은 ‘세대차이로 인해 어울리기 어려움’, ‘나는 불편한 존재’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이런 세대 차이를 자주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세대차이도 만학도로서 학교생활에서의 하나의 어려움으로 표현하였다.

조별과제는 언제나 힘든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애들이 안 친해지려 하는 게 그냥 딱 보이고요. (중략). 좀 철벽 치는 느낌 딱 들죠.. 저는 어울려서 잘 해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참여자 4)

조별활동을 하는데 친구들이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은근히 무시하고 깨들만 쓰는 은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면 멘붕오면서 제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죠. 제가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니까요. (참여자 1)

##### (3)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고민

만학도 간호대학생들 역시도 다른 학생들과 같은 간

호대학생으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 주제모음은 ‘학업 고민’, ‘실습 고민’, ‘취업 고민’ 같은 일반적인 간호대학생들의 고민이지만, 만학도들은 나이에서 오는 더 깊은 고민들을 토로하였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간호학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중 최고봉은 여성간호학인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실습 나가서 남자라고 많은 실습 기회에서 배제된 경험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성간호학은 특히 공부하기 싫고 성적도 안 오르니까 정말 고민꺼리죠 (참여자 5)

실습 할 때 나이 상관없이 간호사들이 바쁘면 막 부러먹는 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정말 실습 잘하고 싶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데 저도 인간인지라 실습은 언제나 고민이 되죠 이런걸 언제까지 참을까하느... (참여자 6)

지금 4학년이 되니까 최대의 고민은 병원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많으니 취업이 될까, 아냐 취업은 잘 되겠지 하면서도 너무 많이 고민돼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참여자 1)

## 2) 범주2: 혼자 떠도는 조각배

이 범주에는 ‘외톨이 느낌’의 주제 모음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서 외롭기도 하고 외톨이가 된 느낌을 경험했다. 젊은 학생들은 만학도들을 모임에 끼워넣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만의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어 있어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만학도들은 외로움을 느꼈다. 친구가 되기위한 노력을 했으나 학생들은 쉽게 친해지려하지 않고 마음의 벽을 치고 있다고 느꼈다.

### (1) 외톨이 느낌

이 주제 모음은 ‘군중 속 고독’, ‘혼자서 가는 외톨이’, ‘힘든 친구 되기’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린 친구들로부터 본인을 멀리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어린 친구들을 사귀는 게

힘들었고 그로 인해 외톨이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게 제가 알게 모르게 ‘외톨이가 되어있구나’하고 느낀 거거든요 저는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다가가도 학과 친구들이 마음의 돌레를 벌써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아. 애들이랑 친구 되기 어렵겠다. 외롭다. 뭐 그런 거요 (참여자 1)

학교생활에서 외톨이라고 느낀 적이 있죠 사실 많죠 아 내가 나이가 많아 나를 배제시키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조별활동을 하거나 해도 제가 배제된 느낌이 들고요, 군중속의 고독이랄까요 시험 끝나고 애들은 지네들 끼리 우르르 나가 놀러가거나 할 때 저는 집에 가거든요 (중략). 아 학기 초에 MT 갔는데 제 주변에는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방에는 애들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참여자 3)

## 3) 범주3: 편견에 부딪힘

이 범주는 ‘나이 차이에서 오는 많은 편견들’이라는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 많았고, 그러한 편견을 참아낼 수밖에 없는 학생이라는 처지에서 참여자들은 그 편견들에 의해 좌절하고, 실망하며, 불쾌함을 느꼈다고 이야기 하였다.

### (1) 나이 차이에서 오는 편견들

이 주제모음은 ‘학우들의 편견’, ‘실습지에서의 편견’, 그리고 ‘교수님들의 편견’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점심시간에 같은 학번 애들이랑 점심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 선배 애들도 점심을 시켜먹고 있더라고요 뭐 나이 많은 후배 들어왔다고 들었는지 따가운 눈총과 함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취직은 되겠어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정말 실습지에서도 선생님들한테도 듣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들으니까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참여자 1)

실습을 하는데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그 나이에 오라는 병원 있으면 감사하면서 가라고, 아마 오라는데도 없을걸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너무 기분이 상했고요, 그 상한 마음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말 듣고 기분이 나빠서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참여자 7)

입학하자마자 넌 나이에 있는데 왜 왔니,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좋은 병원은 못 가는데 왜 잘 있는 애들 순위 밑으로 끌어 뺄기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안 좋고 하루 종일 울고 그 달 내내 우울하고 그 학기에 점수가 많이 안 좋았어요 (중략). 어떻게 교수님이 학생한테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물론 나이 많은 학생이고 편입하고 늦게 들어왔어도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한 학기 내내 힘들었어요. (참여자 4)

4) 범주4: 나만의 무기

이 범주는 ‘나라서 갖는 이점들’이라는 주제 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만학도인 자신들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1) 나라서 갖는 이점들

이 주제모음은 ‘이전의 사회경험이 가지고 온 이점들’과 ‘나는 눈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의 경험들이 책임감을 더 키웠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 편안해 지겠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 눈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실습 때 간호사 쌤이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지 학생들이 해온 바이탈 사인을 보고 막 화를 내는데 학생들도 뒤에서 쫓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중략). 나중에 그 쌤이 진정됐을 때 와서 나이 먹은 사람이라 그런지 역시 눈치도 있고 일 해결 능력도 좋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어린 학생들보다 좀 더 사려 깊고 눈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마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참가자 3)

표 2. 주제, 주제모음, 분류

Theme	Theme cluster	Category
방대한 학업량	학업의 어려움	고난 속 학업
암기의 어려움		
세대차이로 인해 어울리기 어려움		
나는 불편한 존재	함께하기 힘든 세대차이	
학업 고민		
실습 고민		
취업 고민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고민	
군중 속 고독		외톨이 느낌
혼자서 가는 외톨이		
힘든 친구 되기		
학우들의 편견	나이 차이에서 오는 편견들	편견에 부딪힘
실습지에서의 편견		
교수님들의 편견		
이전의 사회경험이 가지고 온 이점들	나라서 갖는 이점들	나만의 무기
나는 눈치 있는 사람		
암기보다는 이해	간호학과 적응 노력	그래도 희망은 꽃핌
감사한 것 찾기		
미래를 위한 도약	더 큰 꿈을 꾸어 봄	
힘과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들		
간호사가 되겠다는 의지		

다른 학생들보다 실습에서 항상 20-30분 일찍 가서 실습지에서 대기하고 있고, 가끔 청소하시는 분들도 도와 드리고 하면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학생들과는 다르게 눈치도 있고 배려심도 있다고 칭찬도 들어 봤지요 (참여자 7)

제가 그렇게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애들이랑 있으면서 아무래도 동기애들 보다는 이렇게 하면 간호사 생이 일하기 좀 수월하겠지 하는 것 그냥 행동하는데 간호사들이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실습나간 애들도 제가 왜 실습점수 잘 받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눈치 있게 행동 잘 한다고 하니깐요 (참여자 6)

#### 5) 범주1: 그래도 희망은 꽃핌

이 범주는 '간호학과 적응 노력', '더 큰 꿈을 꾸어 봄'의 2가지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힘든 학업과 실습을 하면서 많은 상실을 경험하고, 편견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있었다.

##### (1) 간호학과 적응 노력

이 주제모음은 '암기보다는 이해'와 '감사한 것 찾기'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어떻게든 학업을 진행하고 적응하려고 의연하게 현실을 받아들였다.

나이가 있어서 암기는 안 되지만 이해가 확실히 빠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뭐가 중요하고 이것저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 것 같거든요 시험기간에 애들 많이 찍어주면 애들이 좋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애들이랑 말도 썩고 하죠 (참여자 7)

사실 다른 학과 사람들은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돼서 난리잖아요 학교생활이 좀 힘들어도 감사한 것들도 있거든요 적어도 남들보다는 취업이 그래도 쉬울 것 같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참여자 4)

##### (2) 더 큰 꿈을 꾸어 봄

이 주제모음은 '미래를 위한 도약', '힘과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들', '간호사가 되겠다는 의지'로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단지 졸업 후 간호사가 되는 꿈에 그치지 않고 먼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였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놓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이야기 하였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지금은 제가 되고 싶은 마지막 꿈을 위한 도약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퇴직 후 요양병원을 경영하고 싶거든요 실버타운 그런거 아니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락한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노인을 돕는 기관을 세우고 싶어요 (참여자 1)

정말 나이가 어렸다면 때려치웠을 텐데 이젠 나이가 있어서요 그리고 부모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어요 부모님은 우리 딸이 졸업 잘해서 이젠 더 이상 내가 보살피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시니깐요 제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여기서 끝을 낼 수 없다. 다시 무엇을 시작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고 나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니 끝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 나이에 학원 강사도 때려 치고 왔는데 반드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제 의지가 확고하니 졸업은 하겠죠?(웃음) (참여자 2)

## 2.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의 본질적 구조

본 연구에서 도출된 8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와 5개의 범주(Categories)를 통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 경험을 도식화 하였다(표 2). 참여자들은 만학도의 경험을 '고난 속 학업', '혼자 떠도는 조각배', '편견에 부딪힘'으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은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도 희

망은 꽃핍'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의미와 경험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만학도로서의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총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난 속 학업'에 관한 범주에는 '학업의 어려움', '함께 하기 힘든 세대차이',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고민'으로 주제모음이 분류 되었다. 둘째, '혼자 떠도는 조각배'의 범주에는 '외톨이 느낌'의 주제모음이 분류 되었고, 셋째, '편견에 부딪힘'의 범주에는 '학우들과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편견들'이라는 주제모음이 분류 되었다. 넷째와 다섯째로는 '나만의 무기'의 범주는 '나라서 갖는 이점들' 그리고 '그리도 희망은 꽃핍'이라는 범주에서는 '간호학과 적응 노력', '더 큰 꿈을 꾸어 봄'이라는 주제모음으로 분류 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고난 속 학업' 부분에서는 대상자들은 아무리 외위도 자꾸 잊어버리는 암기력이 일반 학우들 보다 낮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초의학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자신이 일반 학우들 보다 시간을 더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자책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생들의 경우 1학년 과정이 없이 2학년 수업인 기초의학 과목들을 바로 접하면서 생소하고 외울 것이 많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암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상담학과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김건숙과 동료들[19]의 연구에서도 만학도들은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특히 공부 내용을 암기하는 부분, 나이로 인해 공부하는 게 힘들다

는 점, 공동과제 수행의 어려움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호학과에서 여성 만학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만학도들은 암기 위주 학습을 버거워하고 있었고, 나이 때문에 암기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는 결과를 보여주어[2]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를 위해 입학 전 학생들을 위한 개별 혹은 그룹 오리엔테이션이나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과목에 대한 정보와 선수학습 등의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예비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젊은 일반 학우들과 함께 해야 하는 과제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토론하면서 오는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었으며, 그런 과정 중에 은근히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만학도들은 열외 되고, 동시에 무시당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보고한 백영림과 송병남[11]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 결과는 그들만의 또래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 나이든 사람들인 만학도들이 섞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또래 집단 안에는 나이 많은 학우들이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만학도에 대한 트렌드 교육이나, 함께 공부하는 학우로서의 동질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편입학을 한 만학도들을 위해 학제의 구분과 학과의 구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준다면 편입한 만학도들이 2학년 또는 3학년 수업에 나타났을 때 기존의 학생들이 그들을 향원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만학도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3, 4학년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학업, 실습, 취업의 고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민들은 만학도 간호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대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들로 판단되나, 만학도들이 가지고 고민들의 깊이는 나이와 맞물려 더욱 고민의 역치가 낮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제적인 도움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만학도 선배들의 취업 성공기나 만학도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그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범주인 ‘혼자 떠도는 조각배’ 범주에서는 ‘외톨이 느낌’이라는 주제모음이 구성되었고, 주제로는 ‘군중 속 고독’, ‘혼자서 가는 외톨이’, ‘힘든 친구 되기’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었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생활을 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고, 가족을 떠나 생활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은 물론이고, 나이가 많아 어린 학우들이 같이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느낌을 받았다. MT를 가서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어린 학우들은 만학도들을 피하려 하고 어려워하는 눈치를 받았고 그러므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고 기술하였다. 더불어 김진숙과 동료들[17]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만학도들은 젊은 학부생들 속에서 소수의 만학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소외감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만학도가 느끼는 외톨이의 감정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백영림과 송병남[11]의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세대차이도 나고 대화의 내용도 달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고, 일반 대학생들 무리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도 함께 가지면서 외톨이가 됨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느끼는 ‘혼자 떠도는 조각배’와 같은 경험은 백영림과 송병남[11]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이다. 이를 위한 해결 방책으로 만학도들도 간호대학생으로 학과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학생들과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 교감하고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범주인 ‘편견에 부딪힘’은 ‘나이 차이에서 오는 편견들’의 주제모음이 구성되며 주제별로는 ‘학우들의 편견’, ‘실습지에서의 편견’, ‘교수님들의 편견’의 주제가 선별되었다. 학교에서도 처음 입학 당시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자신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상처를 받았다. 3학년부터 시작되는 실습지에서의 나이에 대한 편견은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을 주눅 들고, 초라하고, 의기소침해게 만들었다.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힘들 것이라는 말이나, 좋은 병원

은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만학도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교수님으로부터 ‘나이가 많으니 공부할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은 한 학기 내내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괴롭히기 까지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상담학과 만학도들 역시 일반 대학생들과는 다르게 나이가 있는 만학도를 교수들이 불편해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어[17]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보여주었고, 손세정과 김현정[2]의 연구에서는 만학도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만학도들이 겪고 있는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 당하는 편견들을 없애기는 힘든 실정이나, 만학도 자신이 자존감을 높이고 많은 성공사례들을 접함으로써 학교나 실습지, 그리고 주위에서 오는 편견들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이겨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주 4의 ‘나만의 무기’에서의 주제모음은 ‘나라서 갖는 이점들’로 구성되었고, 주제로는 ‘이전의 사회경험이 가지고 온 이점들’, ‘나는 눈치 있는 사람’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이전에 사회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생활 경험이 실습지에서나 학교에서 눈치가 있는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만들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일반 학생들 보다 빠르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다. 만학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은 더욱더 부각 할 수 있도록 끈임 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범주 5의 ‘그래도 희망은 꽃핍’부분에서는 ‘간호와 학과 적용 노력’, ‘더 큰 꿈을 꾸어 봄’이라는 주제모음이 도출되었고 주제로는 ‘암기보다 이해’, ‘감사한 것 찾기’, ‘미래를 위한 도약’, ‘힘과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들’, ‘간호사가 되겠다는 의지’가 도출되었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학업에 있어서 일반 학우들 보다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이해도가 빠른 것 같다고 하였고, 이해하는 부분을 젊은 학우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이전의 사회경험

에서 겪은 좌절로 인해 이번은 반드시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이 경험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졸업 후 면허증만 취득하면 어디든지 취직이 보장된다는 희망과 감사함이 있었다. 이는 상담학과 만학도의 연구에서도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토대로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개발되고 경력력이 쌓여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17] 나타났고 본 연구의 대상자인 만학도 간호대학생들 역시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하든 좋은 결과를 낳고 간호사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고 기대 하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더 나아가 먼 미래에 대한 포부도 드러내었다. 기회가 허락한다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노인 시설의 경영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지금의 학교생활이 꿈을 위한 도약의 시기라고 표현 하였다. 이는 간호직이 전문직임을 인식하고 간호학과 졸업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분 활용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학교생활과 실습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도에 낙오하지 않고 계속 학업을 한 이유는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과 위안을 얻으며,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만학도들에게 이러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상담과 지도를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도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만학도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총 7명의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면담과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과 공부의 어려움과 혼자 떠도는 외톨이의 감정도 느끼게 되었고, 나이로 인해 받는 편견은 참여자들에게는 상처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험이나 나이를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점들도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과에 적응하려는 모습과 많은 감사한 것들을 찾으며 의지를 가지고 꿈을 이루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만학도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현상을 들여다보는데 의미가 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변의 인식의 전환 및 지지체계의 구축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도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만학도 간호대학생(30세 이상) 7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적응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과 입학, 운영, 관리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소용준, 박준성,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제6권, 제4호, pp.23-44, 2016.
- [2] 손세정, 김현정, "간호학과 만학도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24호, pp.501-520, 2017.
- [3] 황은미, 신수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1권, 제1호, pp.97-108, 2017.
- [4] 박민정, 최동원, "간호대 신입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복합적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4호, pp.339-349, 2017.

[5] 김은아, 박경입, "간호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 제20권, 제2호, pp.234-243, 2014.

[6] 김은아, 김민수,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 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8권, 제6호, pp.3409-3422, 2016.

[7] 박형숙, 윤정미, 김영미, 최인영, 황재현, "간호학과 편입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간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제23권, 제3호, pp.320-330, 2016.

[8] 조의영, 김정애, 김지영, 김현지, 라은수, 이혜연,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제2권, 제1호, pp.35-43, 2016.

[9] 김건희, 황은희,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체험-대학생활의 적응 및 위기 극복,"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5호, pp.123-142, 2012.

[10]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취업통계편," 2014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14.  
<http://cesi.kedi.re.kr/publ>

[11] 이정희, 안영식, "만학도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13권, 제3호, pp.89-116, 2007.

[12] 백영림, 송병남, "성인 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생활에서의 갈등 체험," 질적연구, 제16권, 제2호, pp.85-95, 2015.

[13] 김현, "간호학과 여성 만학도의 학교생활적응 경험," 인문사회21, 제9권, 제5호, pp.143-154, 2018.

[14] 이소현, 모아라, "만학도로서 대학생활에서의 삶의 의미 탐색: 보건관련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코칭연구, 제10권, 제3호, pp.179-195, 2017.

[15] 권정해, 최은희, 최성열, "대학생활을 경험한 만학도의 생활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제2권, 제1호, pp.65-74, 2015.

[16]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es, CA: Sage, 1998.

[17]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 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48-71, 1978.

[18] E. G. Guba and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p.1-423, 1981.

[19] 김건숙, 조남정, 최은미, 하혜숙, "상담전공 만학도의 학부과정 경험 연구,"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pp.775-799, 2013.

저 자 소 개

조 영 미(Young Mi Cho)

정회원



- 2002년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간호학사)
- 2014년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간호학석사)
- 2019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수료)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교육, 노인, 다문화

김 은 정(Eun-Jung Kim)

정회원



- 2001년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7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18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수료)

▪ 현재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간호사  
<관심분야> : 노인간호, 노인 영양불량, 암간호

석 소 현(So Hyune Sok)

정회원



- 1992년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5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1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현재 : 경희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 한방간호